

200자 안내

존 에드거 후버 1

커트 젠트리 지음 / 정형근 옮김

미연방수사국 국장 존 에드거 후버가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FBI국장이 되어 대통령이 여덟번이나 바뀌는 48년간 그 자리를 지키면서 FBI를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법집행기관으로 군림시킨 신화적 일대기를 그린 전기.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바뀌면서도 막강한 정보수사기관을 지휘했던 후버의 집념과, FBI의 비화 등이 소개돼 있다.

고려원 / A5신 / 552면 / 5800원

나도 아빠가 되었다

봄 그린 지음 / 김재영 옮김

미국의 컬럼니스트인 저자가 결혼한 지 11년만에 아빠가 되어 1년동안 아기가 성장하는 모습을 신선한 시각으로 그려낸 육아일기. 처음 태어난 아기를 안은 묘한 느낌, 자기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비로소 이웃아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자신의 작은 변화, 아기가 드디어 부모의 소리에 반응을 보인 때의 흥분 등등을 묘사, 참 '부모'로 변화해가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서울포럼 / A5신 / 402면 / 4800원

길찾기

송지현 엮음

여성문제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70년대의 문학작품 13편을 모은 주제소설집. 중산층 주부들의 막힌 삶의 모습을 그린 3편의 단편과 기혼직장여성의 2중고를 소재로 한 작품들, 빈민 여성의 또다른 굴레와, 여성노동자들의 전향적인 삶의 미래를 제시한 작품, 제3의 성으로서 어머니의 길을 형상화한 작품을 5부에 걸쳐 나눠 엮었다. 각 작품마다 '함께 생각해 볼 문제'를 붙여 비판적 책읽기를 유도한 것도 특징.

동녘 / A5신 / 312면 / 5000원

나는 아무래도 항구로 가야겠다

고은 지음

왕성한 창작활동을 펴고 있는 시인의 아포리즘 모음. 그동안 출간했던 백여권의 작품집 중에서 가려 뽑은 것들을 모았는데, 시인의 작

품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주기도 사랑, 허무, 방황, 인생, 자연과 인간, 깨달음, 민족과 역사, 문학과 예술 등의 주제로 나눠 시인 특유의 명상과 열정을 보여준다.

아침 / A5신 / 246면 / 4000원

여자도 이제는...

박은희 지음

젊은이들의 연애와 사랑과 성을 주제로 바람직한 이성관을 모색하고 있는 책. '두려운 성, 가까운 성' '또하나의 전쟁' '결혼전의 약속' '빛나는 선택' '어머니 또하나의 여성' '우리는 동지' 등 모두 14개 장으로 나누어 앞부분은 소설형식 뒷부분은 그에 대한 해설과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새날 / A5신 / 256면 / 4000원

별기보다 쓰기가 살기보다 죽기가

이동찬 지음

코오롱의 창립자로 현재 2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한국 현대경제사의 산 주역인 저자가 고회를 맞아 솔직하고 담담하게 털어놓는 70년 삶의 회고록. 1992년 몰락한 양반가의 자손으로 태어나 궁핍과 혼란의 시대를 뼈아프게 체험해야 했던 어린시절, 15세에 도일, 학도병에 지원하여 생사를 건 군대생활, 해방과 귀국, 전쟁의 비극을 거쳐 1953년 국내최초로 나일론을 들여와 의류혁명을 일으키게 되기까지 지금까지 감추고 있었던 성장기 이야기까지 진솔하게 들려준다.

전원 / A5신 / 312면 / 5000원

그들 속에서도 풀꽃은 핀다

문순태 지음

'타오르는 강', '걸어서 하늘까지' 등의 소설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중견작가가 오랫동안 내놓은 산문집. 암울했던 우리 역사에 대해 소설로써 꾸준히 재조명해왔던 것처럼 이번에 묶은 산문집에서도 작가는 역사의 아픈 상흔을 짚어지고 비탈진 시대를 살아가야만 하는 풀꽃같은 민초들의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한시대의 역사에 개인의 삶이 어떻게 역할하고 관계맺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강천 / A5신 / 290면 / 4000원

산과 나무를 위한 사랑법

박완서 지음

중견작가 박완서씨가 어른과 청소년을 위해 내놓은 첫번째 성인동화집. 전체주의에 대한 미움, 자연파괴의 걱정, 사라져가는 농촌에 대한 안타까움 등이 작가의 유년기적 체험들과 삶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들이 어우러져 잔잔한 감동을 전해준다. 순수함이 깃든 저자 특유의 정감어린 표현과 뛰어난 현실비판의식이 가미되어 성인들의 감성과 자각을 자극하는 한편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현실과 미래에 대한 저자의 신념을 엿볼 수 있다.

샘터 / A5신 / 176면 / 3500원

카라

조셉 거른 지음 / 원재길 옮김

한마리 야생동물인 매를 통해 현대인이 점점 잃어가는 사랑의 의미를 되짚어본 '그림소설'. 매로 상징되는 '강자'의 미덕은 본성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삶의 자세임과 동시에 욕망을 절제함으로써 삶의 기쁨과 의미를 얻는 것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작가는 '여호수아'라는 소설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성직자.

열림원 / A5신 / 148면 / 3800원

책을 위한 책

앨런 와츠 지음 / 박상준 옮김

최근의 '명상서적' 붐과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앨런 와츠의 신작으로, 힌두교의 베단타 철학을 재해석했다. 인간의 폭력적인 자연정복과 현대 과학기술의 남용과 오용을 비판하면서 우주·자연으로부터의 인간의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틀로 서구 과학과 동양의 직관적 통찰의 만남을 제시한다.

도서출판장원 / A5신 / 280면 / 3800원

가수의 등장연설

볼프 비어만 지음 / 전영애 옮김

현대 독일의 음유시인으로 불리면서 구동독에서의 강도 높은 체제비판으로 주목을 받았던 시인의 대표시 모음. 특유의 도발적, 쟁론적 색채와 서정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독보적인 시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시인의 일곱편의 시집을 텍스트로 했으며 많이 알려진 노래의 악보도 함께 수록했다. 국내에는 91년도 '뽀히너 문학상' 수상시인으로 알려지기 시작.

세계사 / B6신 / 138면 / 3000원

바람부는 들녘

유시춘 외 지음

80년대 우리 문단의 주요한 한 흐름을 형성했던 '민족·민중문학' 계열의 중견작가들이 90년대의 새로운 시대상황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모색해본 신작중편소설 모음, 유시춘의 '아버지의 꽃밭', 이은식의 '바람부는 들녘', 정도상의 '해 뜨는 집', 김인숙의 '당신', 신윤덕의 '蘇生' 등이 수록돼 있다.

민맥 / A5신 / 344면 / 5000원

그리고 내일이 있다 (상·하)

정도상 지음

88년 「친구는 멀리 갔어도」를 발표하면서 일약 민중문학권의 대표주자로 떠올랐던 작가가 최근 펴낸 신작장편소설. 동구권 몰락 이후

침체한 학생운동의 고뇌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학생운동의 존립근거, 90년대 학생운동의 정당성을 탐색하고 있다. 소련체제의 소식이 전해지던 90년 서울 어느대학 이념서클에 경찰이 습격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아침 / A5신 / 각 280면 / 각 4300원

재미있는 삼국지 영웅론

모리야 히로시 지음 / 김봉욱 옮김

「삼국지」에 등장하는 각 인물들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장단점을 분석해놓은 책. 혼란스런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입신을 위해 기회를 붙잡고 처신하는 방법, 웃사사람은 웃사사람답게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답게 행동하는 법,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해결법 등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는 삼국지 영웅들의 됨됨이를 분석,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전해준다.

시민 / A5신 / 310면 / 4500원

아하! 채근담

진동일 지음

아포리즘적인 문학古書인 채근담을 만화삽화를 곁들여 알기 쉽게 풀어쓴 책. 명나라 홍자성이 전집 225장과 후집 134장으로 나눠 집필한 채근담은, 나물뿌리를 씹더라도 부귀영화를 탐내지 않고 굳은 인생관으로 살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안겨주는데, 저자는 권말에 현대인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현대인과 채근담'을 따로 묶어 붙였다.

대흥 / A5신 / 292면 / 4300원

아들·딸 가려내기

박성구 엮음

올바른 가족계획은 균형있는 남녀의 출생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관점에서 아들과 딸을 가려내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책. 아울러 태아를 갖기전에 성별을 가림할 수 있는 실행방법에 대해서도 단락별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런 가려내기법은 유전병 예방과 도덕적인 면, 인도적인 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강조돼 있다.

문화과학실사 / A5신 / 310면 / 4200원

바뀌는 영원하다

姜明漢 지음

월간 「자동차생활」에 연재했던 짧은 에세이들을 책으로 묶어 펴냈다. 저자는 '사람들은 왜 자동차를 좋아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자동차의 역사와 미래, 우리나라 자동차공업, 12간지의 동물성격과 관련해 살핀 자동차이야기, 미국시장을 석권한 일본의 소형차, 독일의 딱정벌레 폭스바겐 등 자동차산업에 얽힌 에피소드를 흥미롭게 엮었다.

정우사 / A5신 / 344면 / 4500원

오토바이 사랑

망디아로그 지음 / 김봉구 옮김

프랑스의 소설가로 67년 「여백」을 발표, 콩쿠르상을 수상했던 작가가 같은 해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출판한 소설로 영화화된 작품. 고교 교사인 레이몽과 결혼한 레베카가 신혼초의 어느날 오토바이를 타고 옛애인인 다니엘을 만나러 가면서 지난 일들을 회상하는 형식을 취한 이 소설은 에로틱한 분위기가 간결한 서술로 효과있게 드러난다.

성훈 / A5신 / 264면 / 4000원

어느 광대의 사랑

김희갑 지음

영화인생 50년을 살아온 원로배우 김희갑의 고회기념 자전회고록. 1920년 태어난 그가 개마고원을 배경으로 한 가족사와 식민지시대 청년기를 거쳐 '먹고 살기 위해' 입문한 광대로서의 삶이 시작된 후 극단을 쫓아 지방무대를 전전하던 무명시절, 「팔도강산」 제작에 따른 중앙정보부의 정치적 술수 등 연에게 비화들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삼진기획 / A5신 / 312면 / 5000원

컴퓨터, 그 사랑과 슬픔

김현국 지음

전자통신에서 PC TOOLS라는 ID(개인번호)로 여러 유머들을 발표해 인기를 끌고 있는 저자의 글들 중 14편을 모아 엮었다. 컴퓨터 초보자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될 에피소드, 통신의 재미있는 세계와 컴퓨터 통신을 통해 맺게 되는 인간관계 등이 저자 특유의 재치있고 속도감 있는 문체에 담겨 있다.

에스컴 / A5신 / 256면 / 4000원

女子의 男子(전3권)

김한길 지음

평범한 한 남자와 평범하지 않은 신분의 한 여자와의 사랑을 그린 장편소설로, 두 남녀가 사회적 인습과 도덕, 신분의 격차 등을 극복하고 그들의 사랑을 완성한다는 고전적 주제를 보여준다. 아울러 황폐해가는 현대인의 내면세계, 정치·경제적으로는 고착된 신분구조의 견고성에 좌절하는 현대인들의 의식세계를 날카롭게 묘사하고 있기도 하다.

해냄 / A5신 / 각 314면 내외 / 각 4000원

증언

센다 가꼬오 지음 / 편집부 옮김

원제는 '중군위안부'로 일본과 한국에 흩어져 있는 정신대 관련 자료와 실제 증언을 발굴, 채록한 책으로, 중일전쟁 초기에서 패전 무렵에 이르기까지 정신대에 대한 일본의 자세와 모집 실태, 그리고 전쟁터에서의 비참했던 위안부 생활 등이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저자는

「毎日신문」기자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논픽션 작가로 활동중.

다물 / A5신 / 242면 / 3800원

또다른 여인이 나를 낳으리라(전3권)

오소 라즈니쉬 지음 / 류시화 외 옮김

칼릴 지브란 최고의 걸작인 「예언자」를 라즈니쉬가 새롭게 재해석한 책으로, "삶이란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아니라 누려야 할 신비"임을 역설하는 라즈니쉬 강의의 테마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지브란이 작품을 집필할 당시의 황색 노트를 재현하여 각 권 책머리에 나누어 실어 시만을 감상할 수도 있게 한다.

정신세계사 / A5신 / 각 340면 내외 / 각 4500원

창간호

평화연구

▲21세기 안보를 위한 제언(레온 보론코프) ▲탈근대 국제질서와 군비축소(하영선) ▲전환의 정치경제학(스티븐 커비) ▲중국 신안보정책의 방향과 한반도 군축(황병무) ▲지구시대와 일본(사카모토 요시카즈) ▲분단민족과 분단국가(호칸 비베리) ▲탈냉전시대의 한미안보관계(한승주) ▲군비통제 정책의 이론적 분석(오관치) ▲한국인의 의식에 나타난 정치적 평화(최상용)

고려대평화연구소 / A5신 / 220면 / 비매품

과학사상

[발간사] 정신과 물질 그리고 윤리(이성범) [권두논문] 인간과 과학(김남두) [특별좌담] '인간성의 과학'을 지향하며(노명식 / 김우창 / 장희익 / 김영식 / 김용준) [논단] ▲현대 과학의 철학적 소묘(김용정) ▲자연의 복원에 이바지하는 생태윤리(김준호) [현대과학의 조류] ▲우주론의 어제와 오늘(소광섭) ▲'혼돈과학'이란 무엇인가(이호연) [연속강좌] 천문학 이야기: 인간과 우주①(현정준) [특집] 현대 과학사상의 재조명 ▲포퍼의 과학사상과 철학(박은진) ▲과학관의 혁명이 토마스 쿤(오창희) ▲포스트모던 과학의 탐구(윤평중)

[명저해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정용재) [학계동향] ▲심리학: 정보처리 패러다임(조명환) ▲생화학: 노화연구의 최근 동향(김숙희) ▲신경과학: 뇌연구의 현황과 과제(김진수) [해외논단] ▲생태계 위기의 역사적 기원(화이트) ▲과학발견의 창조적 과정(브로노프스키)

[삶의 길목에서] ▲설을 쇠고 나서(박완서) ▲'선진국'과 '노벨상'(모혜정) ▲어느 문학도가 만난 과학(석영중)

[기획연재] 아인슈타인의 삶과 과학①; 그의 인간적 면모①(장희익)

범양사 / A5신 / 318면 / 4500원

계간지

사상(1992년 봄)

[특집] 한국 경제의 평가와 전망 ①발전전략-과거, 현재, 미래 ▲한국 경제의 발전전략(조순) ▲세계 속의 한국 경제(박영철) ▲한국 경제, 과연 위기인가(강철규) ②자본, 통상, 경영 ▲자본자유화시대의 개막(김인준) ▲우루과이라운드: 전망과 대응(박태호) ▲한국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조동성)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김태현) ③경제정의의 문제 ▲불로소득, 불평등과 자본위기(이정우) ▲경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안석교) ▲한국경제, 과연 정의로운가(서경석) ④경제와 환경 ▲국도의 산업공간화와 '삶의 세계'의 변질(권태준) ⑤아시아의 경제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이코노미스트)

[특별기고] 위로부터의 반혁명? (최정호)

[기획연재] 우리의 사상을 찾아서④ 정약용(송재소)

나남 / A5신 / 296면 / 4000원

현대시사상(1992년 봄)

[시] 이형기 / 정진규 / 최승호 / 윤성근 / 박용재 / 이지혜

[해외시] 이브 본느프와

[기획] 독일 현대시 ▲전후 독일시 개관(박상배) ▲언어실험과 문학의 정치화(김용민) ▲서정시 파도와 그 이후(전영애) ▲내면화와 형식 복귀: 신주관주의에서 네오비터마이어로 ▲자기 자신에 관하여 쓰기(군트람 베스퍼)

[논문] 이승훈·처용의 수난과 통사의 해체

[서평] 신범준 / 박민영

[나의 대표시] 김승희

고려원 / A5신 / 192면 / 3500원

현대시세계(1992년 봄)

[기획평론] 전환시대의 시와 전망 ▲탐색하는 정신과 서정적 인식(박덕규) ▲운문의 시대는 갔는가(전정규) ▲무너진 것과 무너질 수 없는 것(한만수)

[시인연구] 장정일 ▲시인과의 대담(이영준)

▲시인론(장석주) ▲연보 및 연구자료

[신작시] 김종해 / 김재진 / 송재학 / 조현석 / 이진명

[21인의 재수록시] 서정주 외

[해외시 읽기·4] ▲빠블로 네루다, 시를 살

아낸 삶(추원훈) ▲대표시선

[시집서평] 고희진 / 이종환 / 이윤택 / 이하석 / 김현선

청하 / A5신 / 288면 / 4000원

오늘의 詩(통권 제7호)

[특집좌담] 정신주의詩, 무엇이 문제인가(도정일 / 최승호 / 남진우 / 박혜경)

[기획특집] 오늘의 시인 허수경(유하)

[평론] ▲하반기 문재詩 총평(신법순) ▲하반기 주요시집 해설(손경목 / 권성우)

[91년 하반기 발표詩 총목록]

玄岩社 / A5신 / 228면 / 4500원

학술지

러시아 연구(제1권)

[논문] ▲러시아상징주의 모델의 발전과 Andrej Belyj의 소설(김희숙) ▲올레샤의 「질투」에 나타난 서술자와 시점의 문제(서영중) ▲숨은 詩人の 그림자: 보리스 푸스케르나크 작품속의 詩的 自我의 변형에 관하여(이덕형) ▲신경제정책기 소련의 농민경제와 콘드라티예프의 친농민적 경제발전 계획론 ▲스탈린 사후 흐루시초프의 공산당 개혁정책(박수현)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와 권위의 위기(정한구) ▲소련의 對북한 영향력 행사에 관한 연구(전홍찬)

[서평] V.P. Makarenko 「관료제와 스탈린주의」(하용출)

서울대소련·동구연구소 / A5변형 / 282면 / 비매품

